

우리의 비전 : 이든밸리 원주민 마을에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날이 오리라 !!

우리의 사명 : 잃어버린 자들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



**아직 끝나지 않은 북미 원주민 선교편지 (주간 선교일기) 김문영, 이순양 선교사**



- 1. 이든밸리 원주민 교회 사역
- 2. 마을 중독자들 교육 (매주 목요일)
- 3. 문서선교 (매달 한인신문에 칼럼 기고)

(2021년 7월 4일)

여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이든밸리에도 예배시간에 유독 아멘으로 화답하는 친구 ‘체스터’가 있다. 표정도 없고 무뚝뚝한 사람인데 한국 교우들처럼 우렁차게는 아니지만, 찬송을 부르고 마칠 때마다 옆 사람이 들릴 정도로 “아멘!” 짧고 굵게 한다. 작년 이맘때쯤 부터였다. 그가 시작한 아멘의 화답은 이든밸리 예배 시간에 잔잔한 기쁨과 생동감을 만들어낸다. 표현력이 부족한 다른 친구들도 체스터의 아멘 소리에 동참하는 분위기이다.

주일예배 후에나, 목요일 교육사역을 마치고 이든밸리를 떠날 때 우리의 대화 중에 새 힘을 얻게 하는 것이 있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에게 친절해졌어요” “예배시간 서로 인사하는 시간에도 얼굴들이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당신이 축도할 때 모두 진지해요”. 마치 오랜 세월 후에 아기를 얻게 된 중년 부부가 아이의 웅얼거리는 소리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뻐하는 듯하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든밸리의 ‘곰들의 발’ 부족 교우들, 모두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소서.

(2021년 7월 11일)

지난 주간에도 매일 성경을 읽었지만 내 마음에는 안개가 자욱이 끼어있는 것 같았다. 원주민 마을의 느린 상황에 한국인의 급한 기질로 힘들어한 것이 원인이었다. 마음을 추스르고 정성스레 성경을 한자씩 종이에 써 내려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에베소서를 적어가는 중에, 첫 장에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크고 웅장하게,, 희미해진 내 귀에 거대한 북이 울리듯이 "꽝!!".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메마를 수 있을까, 시든 것은 연약해진 속 사람일 뿐.

그저께, 북중미 지부장에게 지부 선교사들의 상황을 들었다. 팬데믹 상황의 어려움으로 선교지 철수를 고려하는 선교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명 의식이 결여된 그를 강하게 질타했다. 1시간 정도 대화 후에 마음이 무거웠다. 밤새도록 무거웠다. 권역장으로써 비틀거리는 주의 종들을 일으켜 세우고 싶었지만,, 울고 싶었다. 주님! 북쪽 캐나다에서 남쪽 아르헨티나까지 우리 선교사들을 붙잡아주소서, 그리고 도와주소서.

(2021년 7월 18일)

원주민들의 전통행사 ‘파우와우’와 ‘사냥’ 기간으로 접어들면서 마을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떠났다. 최소한 8월 말까지는 모든 것이 중단된 듯한 적막함 속에서 복음 사역을 한다.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주께 경배드렸다. 마을에 남아 있는 적은 수의 ‘대군’들이 이런 황량한 기간에도 예배를 참석했다. 목소리 높여 은혜와 사랑을 찬양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원했고, 지난 주간 내내 기도하면서 준비한 멧세지도 심혈을 쏟아부어 전했다. 아내와 함께 참석한 하워드가 예배후에 마스크 위로 보이는 충혈된 눈으로 이렇게 말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침례받기 원합니다!”. 사실 나는, 어제 낮부터 오늘까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이든밸리 오는 내내 무척 힘들었고 예배인도하는 도중에 에너지가 모두 소모되었다. 그런데,, 하워드의 고백을 들으며 보잘것없는 충성을 받아주시고 열매를 맺으시는 주님께 감격하며 감사드렸다, “생명의 주님, 하워드 부부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소서”.

(2021년 7월 25일)

어느새 친해진 마을 똥개 ‘백구’가 나를 보기만 하면 엉덩이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꼬리를 흔들며 반가운 미소를 짓는데, 오늘도 비에 함뼉 젖은 채로 나를 보자마자 한껏 신이 나서 뛰어왔다. 난 엉겁결에 “오~ 백구 왔어? 이리와 빵 줄게” 했는데 어리둥절한다. 왜 그러지? 왜는 왜! 한국말로 오라 하니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에 따를 리가 있다. 얼른, 지가 알아들을 만한 언어로 다시 말하니 잘도 따른다.

우리도 삶의 방향을 잡재우려면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마땅한데, 난 주님의 음성은 고사하고 그분의 손길도 무뎠진 채, 지루할 정도로 힘든 상황을 버겨워하고만 있다. 천둥소리보다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성경 묵상에 게으름을 피우는 우리에게 아예,,전화기에 앱만 깔아도 주님의 마음을 수시로 들을 수 있는 전자 성경도 가지게 하셨다. 주여~ 우리가!! 거짓 평안과 거짓 확신에 자기 영혼 팔지 않고 성경 말씀으로 충만하여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 받게 하소서!

(2021년 8월 1일)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든밸리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그분의 정확한 메시지를 알리고 성경을 연구한다. 의대생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판사들을 공정한 판결을 위해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하는데, 하늘의 비밀을 전달하는 우리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노력하는지 난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야 마땅하다. 하나님을 빕기에 미치도록 죄송할 뿐이다. 그나마 겨우 정신 차린 때가 코로나 위기로 분주함이 강제로 진정되었을 때,,그때서야 비로소 한글,영어성경, 원문인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총동원하여 하루 12시간 정도씩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 이제야 들리는 듯하다. 그들의 발자국소리를 들으면서 동참한다. 원주민들도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경뿐! 하늘나라 동역자여, 갖가지 행사로 만족하려는 유혹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자.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시도록 하자!

(2021년 8월 8일)

캘거리에 살면서 가끔 이든밸리 방문하는 코디가 오늘은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술을 마신 채 예배에 참석했다. 그는 원주민으로서 보기 드물게 잘나가는 사람 중의 한 명이다. 영화를 몇 편 제작한 영화감독이고, 얼마 전에 캐나다 국영방송사인 CBC에 다큐멘터리 제작 감독으로 취직하기 위해서 인터뷰하고 왔다고 한다. 그의 꿈은 원주민들의 역사를 영화로 만드는 것인데 비방과 폭로가 아닌 화해를 위한 진실의 영화가 만들어지길 기다려 본다.

예배 후 대화 중에 입과 몸이 약간 틀어지는 것이 보였다. 물어보지 않았는데, 알콜이 자신의 몸과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고백한다. 아들과 비슷한 연령층인 코디는 한번 이혼한 경력으로 자신이 실패한 사람이라는 것에 심하게 괴로워하고 있다.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시사하고 간절히 기도하니 영영 운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필요한 사람이 왜 이리 많은지,,주님,, 이곳에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에 임재하소서 약속의 성령님이시여!

(2021년 8월 15일)

나는 나를 고발한다,, 싸워야 할 대상은 악한 영이며, 매 순간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셨는데, 그 전쟁터에서 주의 종으로 살고 있는 나는 어떤 무장을 하고 있는지 총기 점검을 해본다. 수십 년의 선교 경력이 내게 주어진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무기라고 생각했었다. 사단은 깔깔거렸고,, 이런 나를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 고발한다. 환갑, 진갑을 지난 나이 탓 하며 게으름 피운 것도 사단의 박수 소리를 영계에 울리게 한 원인이 되었으니 나는 가슴을 치며 나를 주께 고발한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 하라고 파송 받았지만, '종'의 모습은 없어지고 어른 행세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니 내가 받아야 할 징계에 섬뜩하다. 영원한 통치자이신 주님께 머리 조아리며 이런 나를 내가 고발한다. 성령님 대신 잔재주를 의지했고 불도저가 필요한 곳에서 쟁기질하고 있는 나를 보았다. 사단이 나를 주께 조롱하듯 고발하기 전에, 내가 자비하신 주님께 두 손 들고 관대한 처분을 기다리며 먼저 자수한다. "나를 용서하소서!"

(2021년 8월 22일)

침례 요한은 광야의 수도사로서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명을 실천하며 살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예수님께로 옮겨갔고 요한의 높았던 인기와 명성은 쇠퇴해졌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인생의 실패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성취의 기쁨으로 충만해졌다. 예수님은 요한을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셨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힌 후, 자기 죽음이 예고 없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감지했을 무렵,, 예수께 이런 질문을 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할까요?". 잉태되면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요한이 이때에 흔들렸을 리 없다. 다만 자신의 삶을 주님께 확인받고 싶었을 것이다. 평생 헌신한 삶이 '공수래공수거' 정도의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 확인받으려 했다. 최후의 심판 날에 치열했던 우리의 삶이 헛일이었다고 결말 난다면,, 어이쿠! 나도 주님께 여쭙는다. "맞죠? 주님, 부족한 나와 아내의 인생이 헛되지 않은 거죠?"

(2021년 8월 29일)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팬데믹 덕분(?)에 잠잠했던 파괴자들이 다시 교회를 침범하고 있다. 진절머리가 난다. 예배당 유지를 위한 물품들을 모조리 가져갔다, 심지어 보일러 리모컨 안의 소형 배터리까지,, 원주민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들을 변호하려고 무지 애썼는데 이제는 양심이 허락지 않는다, 너무 지친다. 하늘아래 돌도 없을,, 질식할 정도로 숨 막히는 사람들, 한 줄기 빛조차 찾기 어려운 공동체, 우리는 마치 신선한 채소를 기대하며 사하라 사막 한 가운데서 물 주고 있는 듯하다. 이런 일을 너무 자주 경험 하면서 아내와 나,,이젠 이들을 포기하고 싶어진다. 물을 뿌렸으면 흔적이라고 남아야 되지 않는가? 일어서려고 하지도 않고 살려고 발버둥 치지도 않은 채 죽어간다. 이제 그만 뒤야 할 때인가?

'제국의 무덤'으로 만들어버린 아프카니스탄!,, 잔인무도한 그들의 조상에게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어떻게 견뎌냈을까?,, 결국 오늘도 '포기'를 '포기한 채' 예배당을 나왔다,

(2021년 9월 5일)

이든밸리에 매년 9월이 되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전쟁 아닌 전쟁이 있다. 도시의 현대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파리떼와의 싸움이다. 예배당을 아무리 청결하게 유지해도 들판에서 말들과 함께하던 파리들이 예배당 안으로도 몰려온다. 오늘은 천장에 벌떼들의 운집 장소처럼 붙어있다. 창문마다 날갯짓에 합창 소리를 낸다. 몇 년 전에는 이 현상을 무시하고 예배를 인도하다가 입과 얼굴로 달려들어서 주님께 집중할 수 없을 지경도 있었다. 기어이 작년에 기도 동역자들이 한국에서 파리 잡는 끈끈이를 보내왔었다. 창문마다 붙이며 예배를 준비하는데 벌써 까맣게 달라붙는다. 한동안 그들을 살폈다, 파리들을 유혹하는 예쁜 색깔로 만들어진 끈끈이는 파리에게는 지옥 그 자체다. 그걸 보고 있는 내 모습이나, 온갖 덩을 놓고 걸려드는 죽을 영혼을 쳐다보고 있을 사단이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파리들,, 발버둥 칠수록 탈출 가능성은 더 사라진다. 우리,, 이렇게 살다가 이런 운명을 맞이하면 되겠나?

(2021년 9월 12일)

지난 수년간 매 주일, 이든밸리 교우들을 위한 빵 전달이 종료되었다. 내 허리가 더 이상 빵을 싣고 나를 수 있는 상태가 못되고 아내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아쉽지만 지난주에 마지막 빵을 공급했다. 교우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달했고 "당신들을 향한 우리 마음만은 변치 않는다"고 했다. 웨인이 엄지를 척 들고 눈으로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 그에게는 귀한 양식이었을 텐데 오히려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 "그동안 고마웠다"고,,

이제부터 예배자들을 위해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은 '하늘 양식'뿐이다. 뭔가 빠진 것이 아닌, 오히려 더욱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기도와 말씀 연구에 전념하라는 주의 명령으로 삼겠다. 다가올 캐나다의 혹독한 겨울에는 웅크리고만 있지 않도록, 아내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기회를 주셨다. 사도들이 "다른 것 없어도 내가 가진것은 예수님의 이름뿐"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순전한 하나님 말씀 전달자가 되려고 줄달음친다.

(2021년 9월 19일)

딱 걸렸다 요놈들, 너희들이 범인이구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용히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사진을 찰칵! 찍었다, 보기만 해도 멧쩌부린 녀석들,,예배당 주변을 거닐고 있는 사랑스러운 동네 말들이다. 그런데 그 녀석들이 돌아다니면서 쉬~ 응아~를 해대는 바람에 우리가 곤욕을 치른다. 파리 떼를 양산해서 따뜻하고 포근한 예배당으로 몰려들게 만든다!

세상은 말뚱처럼 경쟁적으로 생산품을 만들어낸다. 노래, 영화, 게임 등 삶을 자극하는 것들이 '문화'로 포장되어 유혹의 손짓을 한다. 삶을 폼나게 만드는 것 같아도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이든벨리가 외딴곳이지만 중세시대의 외곽지역은 아니다. 이곳에 사람의 정신과 몸을 망가뜨리는 현대 물품이 빛(?)의 속도로 유입된다, 무방비로 당한다. 우리가 끈끈이와 살충제로 예배 전에 파리 떼를 모-조-리!! 박멸하는 것처럼, 이들에게 달라붙는 영적 해충들을 방역하는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는 선교사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1년 9월 26일)

가장 큰 원주민 마을에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장례식을 치른다는 뉴스가 떴다, 역시나 마약 때문이다. 광대한 나라 캐나다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신기할 정도로 같은 고난을 겪고 있다.

문맹과 빈곤에서의 탈출도, 농업의 발달도, 과학도, 의학도, 심지어 정치도, 그리고 삶을 교정하고 성숙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교육'이 진행될 때에 가능성이 생긴다.

원주민들에게 이런 '교육'이 어려운 이유는, 대대로 내려오는 그들만의 '전통'이 한몫을 한다. 자신들을 지키려는 노력에 박수를 보내지만, 안타깝게도 전통 수호자들은 하나님의 손길까지도 거부한다.

모든것을 빼앗긴 역사 속에서 정체성만은 지켜야 된다는 주장을 하지만, 재건하려는 의지는 빈약하고 술과 마약으로 망가짐을 선택하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

성경은 실수와 고난을 극복하고 세상에 우뚝 선 거인 이스라엘을 소개한다. 대한민국도 일으키신 주님이시여, 복음을 전달하실 성~령~님이시여, 이들이게도 임하셔서 일으켜 주소서!

(2021년 10월 3일)

오늘도 예배드리며 하루만 살 것처럼 목소리 높이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렸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으며 높이, 그리고 더 높이 경배를 드렸다, 찬양의 가사에 심취될 때는 박자를 놓칠때가 다반사라 반주하는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이내 주님께 집중한다.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에 임하셔서 모두를 당신의 품안에 안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눈이 열려 주님을 보게하소서, 생명의 주님안에서 죽음의 그늘로부터 벗어나는 행렬이 줄지어 따르게 하소서", 통성기도하기 전에도, 말씀을 선포 전에도 찬양을 한다. 지난주에는 "미안하지만 한국 더 같이 찬양드리고 기도하자"고 했더니 교우중에 누군가 큰소리로 화답한다 "오늘 찬양 많이 부릅시다!". 죽었던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들에게도 총만한 은혜를 주소서,,어두운 동굴속으로 들어오는 밝은 빛을 볼때 얻는 황홀함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빛줄기가 굳게 닫힌 돌문같은 이들 마음속에 비취지기를! 그래서 천국 경험하게 하소서!.

(2021년 10월 10일)

예배 시작 5분 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소원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강단에 섰다. 예배 4분 전!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소독제로 손을 씻고 비치한 마스크도 착용한다, 그런데 의자에 앉지 않고 내 쪽으로 걸어오는데, 술 냄새가 내 코를 찌른다. 그리고 말한다 "난 독수리처럼 날 수 있다", 이내 강단 위로 올라오더니 독수리 날갯짓을 한다. "난 높은 곳에서 땅으로 착지할 때도 안 다쳐!", 이빨을 드러내며 내 앞에서 "까악~"소리도 낸다. 예배 시간 2분 전! 난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이 사람이 미친 건지,,여기오는 우리가 미친 건지,,살리실 주님을 기다린다. 잠시 후, 한 가족이 1년 만에 교회를 찾아왔다. 취직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며 현금 바구니에 돈을 넣는다, 무당에게 '복채' 바치는듯한 모습이

역력하다. 어떤 이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아들을 끌고 들어왔다, 그들 뒤편에서 끝까지 말씀을 경청하는 다른 두어 명이 눈에 들어온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은혜로 구원하소서!!

(2021년 10월 17일)

지난 한주간은 몸이 많이 안 좋았다. 밖에 있을 때 화장실로 뛰어갈 틈도 없이 차 안에서 심하게 구토했고, 두통과 밀려드는 추위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몇일동안 음식물 섭취에도 어려움을 겪었고 체온은 38도를 넘었다. 현재 상황에서 의심되는 것은 당연히 코로나 감염문제다. 검사를 마치고 난 뒤 많은 생각이 밀려왔다.

이른 새벽,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온몸을 덮었고 잠시후, ‘긴급’이라면서 검사 결과 메세지가 왔다. ‘긴급’이라니,,이시간에?, 긴장하며 메세지를 열었다. “김문영 씨 테스트는 음성판정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저희를 계속 사용해주세요”.

심하게 아팠던 다른 원인이 있겠지만, 나와 아내를 괴롭게 하여 복음전파 사역을 방해하려는 영적 전쟁임이 분명하다. “사단아 네 헛발질이나?. 네가 우릴 공격할수록 이든밸리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더 확실히 전파될 뿐이다”.

(2021년 10월 24일)

이번 주 화요일 장례식에 교회 건물을 사용해도 좋은지 마을의 리더인 카운셀러가 내게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성령께서 이든밸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예배당 건물은 마을 소유고, 우리는 그들의 허락을 받고 예배를 인도하는 중인데 지금 그들이 내게 건물 사용 허락을 요청한다니, 마을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인식하길 소원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들이 교회와 하나님을 존중하기 시작한다면 복음화의 가능성이 보이는 징조이다. 비록 소수의 인원이지만 씨앗 되어 열매 되기를,,그래서 다윗이 설립했던 성전문화가, 포로 생활 중에 에스겔이 꿈꿨던 성전회복이, 에스라의 교육으로 정착된 성전중심인 하나님백성들의 삶이 이곳에서도 가능해지기를 작은 불씨에 희망을 담아본다. 이제 이든밸리의 예배당은 더이상 버려진 건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기도와 경배드리는 사람들의 집이다. 꼭 그렇게 될 것이다. 주님 이곳에서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2021년 10월 31일)

이든밸리 사역 초창기때부터 간간히 만나는 젊은이가 있다. 나를 보면 항상 담배를 입에 문 채 멋진 폼을 잡는다. 가끔 예배에 참석하면, 예배후 교회에 비치한 성경책을 집어들고 망서리다가 집으로 가지고 가는 특이한 습성이 있다. 벌써 수년째 이어오는 그의 버릇(?)으로 적어도 10권정도는 가지고 간듯하다.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 난 그의 행동을 도적질로 보지 않고 마음의 동요함으로 본다. 예배드리면서 생긴 마음의 움직임이 새로워지고 싶은 충동과 함께 성경을 집어드는 것으로 이해한다. 어느 기독교단체의 구호중의 하나가 “말씀이 일하신다”이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이셨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거듭나길 소망해 본다. 미사여구로 범벅이되어 귀만 즐겁게하는 단순 위위가 아닌,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이든밸리를 살린다고 믿는다. “성경,,다 가져가라 네가 거듭날수만 있다면!,,다만 너무 늦지만 말아라”. 주 예수여 오소서!!

2021년 11월 1일

북미 원주민 사역자 김문영, 이순양 선교사 드립니다.

(기도제목)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교사 부부가 되게 하소서.
2. 이든밸리 교회에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있으소서.
3. 우리 부부와 아들가정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질병, 사고, 재난 그리고 사단의 공격과 유혹으로 부터 지켜주소서